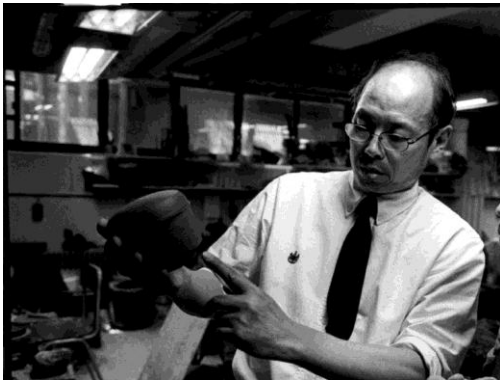


국제도자워크숍 2부 멘토링캠프 II

한국전통도자캠프 <흙으로 빛은 한국의 전통미학>

① 노경조, 한국



“내용은 풍부하게 표현은 간략하게”



노경조는 한국 도자예술의 전통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는 작가로서 연리문 자기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주로 고려시대 연리문 기법을 재해석하여 각병, 합 등을 제작하는데, 크고 작은 조각들을 덧붙이고 잘라내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정제하여 섬세하면서도 경쾌한 형태를 만들어 낸다. 이와 더불어 노경조는 한국의 도자예술뿐만 아니라 한국적 미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회화도 연구한다. 그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2010년 영국 런던의 갤러리 베손의 초대를 받아 개인전 <캔버스에서 도자예술까지>로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그 외에 일본 가나자와 갤러리, 미국 버밍햄박물관 등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 등을 개최하며 국내외에 한국도자의 미를 꾸준히 알려왔다. 노경조는 경희대학교 요업공예과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동대학 미술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이후 일본 시립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현재 국민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도자워크숍 2부 멘토링캠프 II

한국전통도자캠프 <흙으로 빛은 한국의 전통미학>

② 이강효, 한국



“산과 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외경심의 표현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이며 ‘내 삶 자체’이다.”



이강효는 한국의 전통 옹기 제작기법을 응용하여 작업하는 작가로서 과거 선조들로부터 전해 받은 한국 고유의 기법을 고수한다. 그는 한결같이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코일링 기법으로 대형 향아리를 만든 후 조선시대의 당차고 생명력 있는 분청 기법을 차용하여 태토의 거친 표면과 화장토의 부드러운 느낌을 자유자재로 표현한다. 강인하고 힘찬 형태와 생동감 있는 문양 작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작가 본인은 겸손한 태도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홍익대학교에서 공예를 전공한 이강효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여러 갤러리 및 미술관의 초대를 받아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2011년 미국 아시아미술박물관의 <흙으로 시를 빛다>, 2013 호주 <클레이 푸시 굴공 워크숍>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수 많은 전시 및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국제도자워크숍 2부 멘토링캠프 II

한국전통도자캠프 <흙으로 빛은 한국의 전통미학>

③ 정연택, 한국



“창조는 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나온 역사와 전통에서 심미적인 창작이 발현된다.”



정연택은 조선시대 백자를 연구하는 작가로서, 그의 작품은 단정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균형과 절제의미를 고루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본질을 중시하면서 과장하지 않고 절제하는 표현정신과 함께 실용성을 중시하는 당시 선조들의 정서와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후학을 기르는 교수로서 제작자 중심의 도자 기술교육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도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들을 기획함으로써 한국의 전통적인 백자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의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연택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도자공예를 전공하고, 동대학원 응용미술학과에서 공예를 전공하였다. 2011년 경기도자박물관의 <한중도자예술교류전>, <분원백자전-21세기청화백자전> 등에 참여하였고, 핀란드 헬싱키 핀란드국립박물관의 <한국의 집-삶의 방식>전에 출품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국내외의 많은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명지전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도자워크숍 3부 멘토링캠프 II

한국전통도자캠프 <흙으로 빛은 한국의 전통미학>

④ 이인진, 한국



“흙을 만지며 살아가는 것에 감사한다.
흙 작업은 고유한 재능이며 일생의 전업이다.”



이인진은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한국도자의 전통과 우리 선조들의 소성기법 및 제작방식에 매력을 느껴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남다른 배경을 가진 작가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체득한 동서양의 도자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위대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석기질의 거친 점토에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장작가마 소성기법을 사용하며, 소박하면서 단순한 형태에서 보여지는 볼륨감은 다양한 표면의 질감처리로 겸손한 표정을 지닌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동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하였다. <몬타나주립대학 썸머워크숍>, <하와이주립대학 썸머워크숍> 등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였으며, 2010년 <제44회 IAC 총회 초청 한국현대도자특별전>, 2012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프리즘> 등 150여 회의 초대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29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유리과 교수이며,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감독을 맡고 있다.